

최종예선 탐시드 위해...김도훈호 “싱가포르 꼭 잡는다”

6일 2026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 조별리그 C조 5차전 아시아권 랭킹 3위 유지해야 '난적' 일본·이란 피할 수 있어

‘김도훈호’ 한국 축구대표팀이 싱가포르를 상대로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아시아 ‘3위권 굳히기’에 도전한다.

김도훈 임시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6일 오후 9시 싱가포르 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싱가포르를 상대로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조별리그 C조 5차전을 치른다.

4차전까지 3승 1무(승점 10)를 거둔 한국은 중국(승점 7), 태국(승점 4), 싱가포르(승점 1)에 앞서 1위를 달린다.

이번 싱가포르전에서 비기거나 해도 중국과의 최종 6차전 결과와 상관없이 3차 예선 진출을 확정한다.

싱가포르에 지더라도 태국이 승점을 챙기지 못하면 한국은 3차 예선에 나선다.

사실상 3차 예선행이 확정적인 상황에서 한국이 싱가포르에 반드시 승리해야 할 이유는 월드컵 본선 진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FIFA 랭킹을 관리할 필요가 커서다.

한국(23위)은 4월 아시아 랭킹에서 일본(18위·랭킹 포인트 1621.88점), 이란(20위·1613.96점)에 이어 랭킹 포인트 1563.99점으로 세 번째다. 4번째 순위인 호주(24위·랭킹 포인트 1563.93점)에는 단 0.03점 앞선다.

3차 예선 조편성 시드 배정 기준은 6월 FIFA 랭킹이다.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FIFA 랭킹 3위권을 유지해야 3개 조로 나뉘어 치러지는 3차 예선에서 ‘난적’ 일본, 이란을 피하는 조 편성을 받을 수 있다.

3차 예선 조기 진출과 조 편성을 따지기 전에 23

위 한국과 155위 싱가포르의 전력 차를 놓고 보면 지는 건 ‘용납이 안 되는’ 승부이기도 하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올 초 열린 2023 카타르 아시안컵 4강 탈락과 선수단 내분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뒤 대표팀은 잇달아 대행 체제로 A매치를 소화하고 있다.

축구협회는 이번 2차 예선 5·6차전을 앞두고는 정식 사령탑을 세우려고 했으나 불가능해지자 김 감독에게 임시로 지휘봉을 맡긴 상황이다.

새 감독 체제에서 받을 맞춤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그게 패배나 무승부의 변명이 될 수는 없다.

더군다나 김 감독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싱가포르 명문 라이언시티 세일러스를 지휘해 싱가포르 축구에 대해 잘 안다.

한국 출신의 귀화 공격수 송의영(라이언시티) 등 싱가포르 대표팀의 주축 선수들을 직접 지도하기도 했다.

김 감독이 새롭게 선발한 7명의 ‘새 얼굴’이 어떤 활약을 펼쳐 보일지는 이번 경기의 관전 포인트다.

연령별 대표팀에서 활약해온 오세훈(마치다 젤비아), 배준호(스톡크 시티), 황재원(포항), 최준(서울)과 더불어 각급 대표 경력이 전혀 없는 황인재(포항), 박승욱(김천), 하창래(나고야)까지 총 7명이 처음으로 A대표팀에 발탁됐다.

이중 잉글랜드 첼시(2부)에서 지난 시즌 최상의 활약을 펼쳐 보인 공격형 미드필더 배준호가 대표팀에 안착할 수 있을지에 특히 많은 관심이 쏠린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조별리그 C조 5차전 싱가포르전을 앞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이강인이 3일(현지시간) 오후 싱가포르 비산 스타디움에서 훈련하고 있다. 한국은 오는 6일 오후 9시(한국시간) 싱가포르 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싱가포르를 상대한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조정 ‘전국조정선수권’ 금빛 물살

광주체고 금3·은2...목포해양대 금3

광주·전남 조정선수들이 ‘제66회 전국조정선수권대회’에서 금빛 활약을 펼쳤다.

광주체고 조정부는 최근 장성호 조정경기장에서 끝난 이번 대회에서 금3개, 은2개를 획득하며 뛰어난 기량을 뽐냈다.

여고부 쿼드러플스컬(4X)에서 서에서·김정민(3년)·김지선(2년)·김별(1년)이 7분22초96으로 2위 서울체고(7분40초45)를 밀어내고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여고부 더블스컬(2X)에서는 광주B조 서에서·김지선이 7분37초75, 광주A조 김정민·김승현(3년)이 7분42초07로 나란히 금메달과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또 김승현은 여고부 싱글스컬(1X)에서 8분57초38로 금메달을 추가했다.

남고부 경량급싱글스컬(L1X)에는 박준호

위 한국과 155위 싱가포르의 전력 차를 놓고 보면 지는 건 ‘용납이 안 되는’ 승부이기도 하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올 초 열린 2023 카타르 아시안컵 4강 탈락과 선수단 내분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뒤 대표팀은 잇달아 대행 체제로 A매치를 소화하고 있다.

축구협회는 이번 2차 예선 5·6차전을 앞두고는 정식 사령탑을 세우려고 했으나 불가능해지자 김 감독에게 임시로 지휘봉을 맡긴 상황이다.

새 감독 체제에서 받을 맞춤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그게 패배나 무승부의 변명이 될 수는 없다.

더군다나 김 감독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싱가포르 명문 라이언시티 세일러스를 지휘해 싱가포르 축구에 대해 잘 안다.

한국 출신의 귀화 공격수 송의영(라이언시티) 등 싱가포르 대표팀의 주축 선수들을 직접 지도하기도 했다.

김 감독이 새롭게 선발한 7명의 ‘새 얼굴’이 어떤 활약을 펼쳐 보일지는 이번 경기의 관전 포인트다.

연령별 대표팀에서 활약해온 오세훈(마치다 젤비아), 배준호(스톡크 시티), 황재원(포항), 최준(서울)과 더불어 각급 대표 경력이 전혀 없는 황인재(포항), 박승욱(김천), 하창래(나고야)까지 총 7명이 처음으로 A대표팀에 발탁됐다.

이중 잉글랜드 첼시(2부)에서 지난 시즌 최상의 활약을 펼쳐 보인 공격형 미드필더 배준호가 대표팀에 안착할 수 있을지에 특히 많은 관심이 쏠린다.

전남도레크의 ‘해결사’ 김종민(사진)이 K리그 2 16라운드 MVP에 선정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4일 K리그 1·2 16라운드 경기를 평가해 베스트11을 발표했다.

김포FC와의 원정경기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한 김종민이 K리그 2 16라운드 MVP에 등극했다.

전남은 1일 김포솔축구장에서 열린 김포와의 대결에서 전반 31분 박경록에게 헤더를 허용하면서 선제골을 내줬지만 김종민의 동점골과 조지훈의 역전골로 2-1 역전승을 거뒀다.

전남은 6경기 연속 무패(5승 1무)를 달렸다. 2위를 지킨 전남은 1위 안양을 3점 차로 쫓고 있다.

골과 도움을 올린 김종민이 MVP가 됐고, 역전골을 장식한 조지훈도 베스트11 명단에 포함됐다.

전남 김종민 K리그2 16라운드 MVP 선정

전남도레크의 ‘해결사’ 김종민(사진)이 K리그 2 16라운드 MVP에 선정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4일 K리그 1·2 16라운드 경기를 평가해 베스트11을 발표했다.

김포FC와의 원정경기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한 김종민이 K리그 2 16라운드 MVP에 등극했다.

전남은 1일 김포솔축구장에서 열린 김포와의 대결에서 전반 31분 박경록에게 헤더를 허용하면서 선제골을 내줬지만 김종민의 동점골과 조지훈의 역전골로 2-1 역전승을 거뒀다.

전남은 6경기 연속 무패(5승 1무)를 달렸다. 2위를 지킨 전남은 1위 안양을 3점 차로 쫓고 있다.

골과 도움을 올린 김종민이 MVP가 됐고, 역전골을 장식한 조지훈도 베스트11 명단에 포함됐다.

김종민은 앞선 15라운드 안양과의 원정경기에서는 0-2로 뒤진 후반 18분과 27분 연속골을 기록하며 3-2 역전승을 이끌고 발디비아와 함께 베스트 11에 선정됐다.

광주FC의 정호연은 K리그 16라운드 베스트11에 이름을 올렸다.

정호연은 지난 2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FC서울과의 맞대결에서 완성한 움직임으로 중원을 조율하고 3차례 위협적인 슈팅도 선보여 이 경기의 ‘MOM(Man Of the Match)’으로 선정됐다.

광주는 이견희와 베카의 골로 2-1 승리를 거두고 7위로 상승했다. /김여울 기자 wool@

광주빛고을스포츠클럽, 자생력 갖춘 우수 모범 클럽 ‘우뚛’

대한체육회 선정

광주빛고을스포츠클럽이 ‘지정스포츠클럽다음 발굴·확산을 위한 우수사례 공모’에서 지속가능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대한체육회가 주최한 이번 공모는 ▲리더클럽 ▲지속가능 ▲사회적 가치 총 세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총 79개 스포츠클럽이 공모에 접수했으며 18개 클럽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빛고을스포츠클럽은 지속가능한 스포츠클럽 운영 방안을 마련한 점을 인정받아 지속가능부문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총 434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빛고을스포츠클럽은 생활체육뿐만 아니라 전문체육에도 특화성을 지니고 있으며,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빛고을스포츠클럽은 농구, 배드민턴, 탁구 등 세 종목의 전문선수단을 운영하며 지난 25·28일 열린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총 10명(탁구 9명, 배드민턴 1명)의 체육꿈나무를 참가시키는 성과도 일궈냈다.

고혜영 사무국장은 “빛고을스포츠클럽은 우수한 지도자들과 함께 양질의 스포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참여 회원들의 만족도가 높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종목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발전시켜 지역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스포츠클럽으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전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

이승재 목포대 교수, 베트남 축구대표팀 총괄 디렉터 합류

이승재(사진) 목포대학교 체육학과 교수가 베트남 축구대표팀 전력 강화에 힘을 보탠다.

전남도체육회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이 교수는 지난 3일 베트남 축구대표팀에 합류해 13일까지 메디컬, 피지컬팀, 의무팀을 관리하는 총괄 디렉터로서 역할을 한다.

현장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목포대 체육학과 학생 2명도 이 교수와 동행한다.

현재 대한선수트레이너협회 실기분과 관리위원으로도 활동 중인 이 교수는 그동안 박민지·김아람 프로 등 다수의 골프선수 트레이닝을 비롯해 프로 축구인전유나이티드 스포츠메디컬 수석 트레이너, 핸드볼 여자 국가대표 트레이너 등을

거치며 선수 건강 관리 능력을 인정받았다.

이 교수는 “베트남 축구대표팀의 경기력 향상 임무를 맡아 어깨가 매우 무겁다”며 “최선을 다해 베트남 축구대표팀의 성적에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베트남은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조별리그 F조에서 오는 6일 필리핀, 11일 이라크와의 경기를 치른다. 베트남은 현재 1승 3패(승점 3)로 조 3위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4년 광주상설공연(6월)
 일시 : 2024-06-01(토) ~ 2024-06-30(일)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

GAC 공모전시 이창훈 개인전 <도시의 베베로>
 일시 : 2024-06-07(금) ~ 2024-07-07(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